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1:30분부터 교육관에서 <생협이야기>를 주제로 전 교인 환경세미나가 있습니다. 좌담회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며 생협과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행사 후 정성껏 마련한 사은품도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식전에 식당과 로비에 과자시식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참여해 주세요.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 시간에는 선교회별 총회가 열립니다.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신년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 용산구 푸드뱅크 함을 교육관에 설치했습니다. 라면,쌀,국수,고추장,된장,간장,식용유,밀가루,설탕,김,통조림,참기름,조미료 등 유통기간이 넉넉한 식자재와 치약,칫솔,비누,삼푸,세제,화장품,화장지,새 의류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낙엽 위에 한두 마디 글을 적어 지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보세요.

수 24:1~3a / 시 78:1~7
살전 4:13~18 / 마 25:1~13

시 97:1-12
-----------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왕영순 김문주 정선희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임창선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떡 커 피 대 접 : 박상욱 임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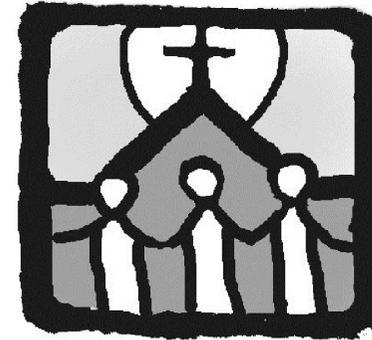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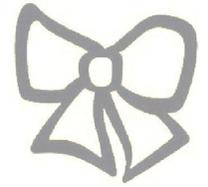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 자주 실망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바라보았던 세상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가꾸어가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인간다운 삶을 꿈꾸다 스스로 스러져간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십시오. 참으로 차갑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부터 일어나 좀 더 따스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명화	오영일	김애경
김애순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김정주	김정미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혜영	노성희	김만균	문금석
박기영	박상규	박윤숙	박창운	허정운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원금	신진식	변혜정	안정숙	왕수명	유금주	유상진	유은정	윤성종
김윤정	윤영미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옥	이성범	권현순	이예서	이왕준	송상경	이우상
이계월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증자	김창경
장동훈	정은선	정두리	정연희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정우선
정한구	왕영순	주은경	한상경	한상의	정영선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신열	무명2							

### 감사헌금

김종락	박영신	문복순	방극숙	이광재	장재영	김재영	전혜민	김성공
정수복	장미란	조병무	송양진	조병주	무명10			

### 생일감사헌금

박기영 이광섭 김수연 이우원 옥귀희

### 녹색꿈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무명2

	백혜숙	박성희	교회	박영희
	신진식	최경미	교회	이은옥
	장영숙	신영신	장미경	박경원
	노순옥	진정숙	조병주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문복순	정선희
	권미숙	박미영	교회	배상순
	김금순	김금순	오복순	이봉옥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곽권희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교회	김경혜
	박혜경	박혜경	정현숙	심상숙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문성종		

## 가을 일기

- 이해인

잎새와의 이별에  
 나무들은 저마다  
 가슴이 아프구나/  
 가을의 시작부터  
 시로 물든 내 마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  
 조용히 흔들리는 마음이  
 너를 향한 그리움인 것을  
 가을을 보내며  
 비로소 아는구나/  
 곁에 없어도  
 늘 함께 있는 너에게  
 가을 내내  
 단풍 위에 썼던  
 고운 편지들이  
 한 잎 한 잎 떨어지고 있구나/  
 지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동안  
 붉게 물들었던 아픔들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려  
 새로운 별로 솟아오르는 기쁨을  
 나는 어느새/ 기다리고 있구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보는 이,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지혜를 따라 행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손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아멘. 세상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과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환경세미나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익 장로	서효진 선생 권미숙 권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강세기 정원석 이현순 이소애
	헌금위원	한상익 유경순

##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0년 11월 13일 1시 30분경.

그들은 플래카드를 꺼내어 펼쳐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2층 복도까지 왔을 때 형사 두 사람이 뛰어와서 플래카드를 빼앗으려 하였다. 전태일은 무어라고 소리치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두고,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밀치고 당기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통에 종이로 만든 플래카드는 쉽게 찢어졌다. 몇 명의 회원은 형사들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끌려갔다. 나머지 회원은 바짝 약이 올라서 “좋다! 플래카드 없으면 못할 줄 아느냐!”고 소리를 치며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 내려가려 하였다.

이때였다. 전태일은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향하여, “너네들 먼저 내려가서 담뱃가게 옆에서 기다려라. 난 좀 있다 갈 테니” 하였다.

친구들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그의 말에 따라 그를 혼자 남겨두고 국민은행 앞길로 내려갔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웅성거리던 5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비원들과 경찰의 몽둥이 앞에 밀리며 이리저리로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먼저 내려온 회원들은 전태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담뱃가게 옆에서 있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의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입으로 화염이 확확 들이쳤던 것인지, 나중 말은 푹푹히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쓰러진 전태일의 몸 위로 불길은 약 3분가량 타고 있었는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당황하여 아무도 불을 끌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뛰어와서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바를 벗어서 불길을 덮었다. 불은 꺼졌다. 흩어져가던 노동자들과 길 가던 행인들까지도 갑자기 일어난 불길을 보고 와서 웅성거렸고, 뒤늦게 평화시장에 타나갔던 기자들도 뛰어와서 수첩을 꺼내들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그것은 지옥 끝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실로 참혹한 풍경이었다. 그의 몸은 옷의 엉덩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고, 온 살결은 화상으로 터지고, 그의 눈꺼풀은 뒤집히고, 입술은 퉁퉁 부르터서 그를 낳고 22년 동안 기른 어머니라 할지라도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몰골로,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다 짜내듯 야차(夜叉)처럼 울부짖었는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외마디 소리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

병원으로 옮겨진 전태일은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온몸을 붕대로 감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주십시오” 하였다.

“그래, 아무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어코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태일은 “어머니,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세 차례나 되물었다. …

그때 전태일은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병원에 와 있던 서너 명의 친구들이 그의 머리맡으로 다가섰다.

“... 자네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란 부모에게 잘못하면 안 돼. ... 너희 부모들께 효도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우리 어머니께도 날 대신해서 효도를 해주게. 우리가 하려던 일, 내가 죽고 나서라도 꼭 이루어주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네. 쉽다면 누군들 안 하겠나? 어려울 때 어려운 일 하는 것이 진짜 사람일세. 내 말 분명히 듣고 잊지 말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